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 보문동 미용사 한정숙의 살아온 이야기

김도현 · 김민경 · 조성윤 · 최우영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3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 보문동 미용사 한정숙의 살아온 이야기

구술자 한정숙

지은이 김도현·김민경·조성윤·최우영

엮은이 김도현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한정숙 · 성북문화원, 2020

ISBN 979-11-954544-4-0 03090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김영미

운영 조성운·김도현·김지훈·김진흠

미술 교육 안혜리·이새빛·조혜수·최은영

<발간에 부쳐>

성북의 역사 만들기

성북문화원은 2018년 1월부터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주민기록단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에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9년 말에는 ‘성북마을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에서 정리한 지역 콘텐츠와 기록물을 검색 혹은 필터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후로 꾸준히 온라인 공간을 통해 마을기록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성북문화원에서 다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마을아카이브팀의 기록물 수집과 생산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마을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기록단이 필요합니다. 주민(住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민(主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을 직접 찾고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이야말로 우리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된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은 2019년에 두 차례 구술 인터뷰 기초교육을 거쳐, 올해 구술 글쓰기 심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열네 분의 수강생 중에는 작년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있고 새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부지런히 교육과정을 따라와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펼쳐내어 공동체와 공유해주신 구술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3년간 구술사 강의를 맡아 열정적으로 수강생들을 이끌어주신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영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술자가 미술로 생애사를 표현하는 활동에 도움을 준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안혜리 교수와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록단 운영을 위해 애쓰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에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 주민기록단이 우리 지역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기록단이 걸어가는 길을 닦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축하의 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역사쓰기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역사강좌가 성북구 주민생애사 시리즈의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작업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이웃의 삶을 경청하여 책으로 엮어내는 이러한 뜻 깊고 아름다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북구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대 100년의 역사에서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이곳 성북구에 기거하였으며, 지금도 지역사회에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성이 이 시리즈의 출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역사의 대중화란 전문 역사가가 대중들에게 쉽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강좌의 대부분이 전문가가 대중들에게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 경험의 총체라고 할 때 역사는 전문가만이 해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과거를 해석하고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처음 이 강좌를 맡아서 몇 차례 구술사 방법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의가 높고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주거공간으로서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몇 대를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기록단 역사강좌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남기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중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특강 담당자였던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연구원들의 지원과 시민 역사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로 힘든 순간들을 넘겼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적 자원으로 내어놓으신 구술자들의 나눔 의지가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위인들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성실한 일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만들어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린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훈훈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의 이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근현대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 영 미

머 리 말

보문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한옥과 양옥 그리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주상 복합 건물들... 이처럼 보문동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과거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정숙님은 보문동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보문동의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미용과 함께한 미용사입니다. 이 책에는 한정숙 미용사의 구술을 통해 보문동의 변화상과 미용계의 발전상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이 책은 한정숙 미용사의 구술내용에 따라 ‘1부 어린 시절부터 미용사가 되기까지’, ‘2부 내 공간, 바니미용실을 열다’, ‘3부 미용실 생활과 일상’, ‘4부 대한미용사회 활동과 미용인 양성의 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을 배우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며, 2부는 미용사로서 보문동에 정착한 이후, 미용실 주변의 동네 풍경과 지금은 사라진 과거 보문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부는 보문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대한미용사회의 일원이자, 성북구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전개했던 활동들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갈 미용인들을 위한 당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펼치신 독자들은 변해가고 있는 보문동과 미용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정숙 미용사의 목소리를 통해 흥미롭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김도헌

차 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어린 시절부터 미용사가 되기까지

통영에서의 어린 시절	19
화가의 꿈	24
서울로 향하다	25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의 학생으로	26

2부 내 공간, 바니미용실을 열다

을지로에서 시작해 삼선교 일류미용사가 되기까지	33
보문동에서 내 미용실을 열고 자리 잡다	35
가장 기억에 남는 미용실	45
바니미용실의 뛰어난 기술과 엄격한 교육	47
미용실 주변 동네 풍경	48
보문동의 변화	49

3부 미용실 생활과 일상

미용사 급여와 미용 기술	55
미용실 운영	61
미용실에 찾아온 다양한 손님	62
여가생활	71
결혼과 육아	75

4부 대한미용사회 활동과 미용인 양성의 노력

보문동 미용실의 교류	81
동네 구역장에서 성북구 지부장까지	83

해외 미용대회 출전	87
미용 강사 양성과 기술·기구의 보급	93
성복구 자체 미용대회를 개최하다	97
후배 양성의 꿈과 미용협회에 전하는 당부	100
에필로그	110



약력

- 1945. 9. 경남 충무시(현 통영) 출생
- 1961. 3. 충렬여자중학교 졸업
- 1964. 2. 통영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5. 2. 서울시 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미용과)
- 1965. 2. (미용기술)합격증(제 6059호) 서울시장
- 1965. 3.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미용실 보조로 취업
- 1967.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미용실 중류미용사로 취업
- 1968.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희미용실 일류미용사로 취업
- 1970. 서울시 성북구 5가 192 (당시 동대문구) 지연미용실 취업
- 1977.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65-3 미용실 운영 (남정약국 맞은편 두 번째 집)
- 1981.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252-1 바니미용연구실 운영 (남정약국 위치)
- 1983. 2. 대한미용사회 서울지역구지회 부지회장 임명
- 1986. 4. 월드챔피언십 파견선수선발 대회 은상 수상/국가대표 선발
- 1986. 7.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임명
- 1986-1991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재임
- 1988. 6.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사 임명
- 1990. 월드챔피언십 한국선수 선발 성북구 예선대회 주관
- 1990년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룩인헤어 오픈 (성신여대 부근)
- 1992. 2.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4기 강사위촉
- 1998.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바니미용실 오픈 (현위치)
- 1999.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임명
- 1999. 1.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사 임명
- 1999-2011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재임
- 2004. 성북구지회 주관(성북구청장배) 미용대회 개최
- 2020. 9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사 임명

면담정보

면담자

1차 : 조성운

2차 : 김민경, 오운영, 최우영

면담일시

1차 : 2020년 07월 27일

2차 : 2020년 10월 19일

면담장소

1차 : 성북구 보문동 한옥집 사랑채

2차 : 성북구 보문동 한옥집 사랑채

※ 공식 면담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01

어린 시절부터 미용사가 되기까지

통영에서의 어린 시절

●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당시에 집이 있던 곳의 풍경은 어땠나요?

1945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통영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 충무시라고 불렀어요. 경상남도 충무시 중앙동 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이층집이었는데 대구를 말리는 작업을 하느라 처마 끝에 대구 수십 마리가 걸려있던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나요.

그때의 통영은 굉장히 풍경도 좋고 안정감이 있었던 기억이에요. 어촌, 어항, 항구의 서정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나 산이나 들의 풍경을 보면 자연미가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현대화가 되었지만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광지

로 변한 곳이 많아서 옛날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없어지는 것들이나 사라지는 풍경들이 많아요. 하지만 (통영에는) 여전히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 함께 살았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는데 통영에서 대구 어장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호남여관이라는 여관을 운영하셨어요. 바닷가라 그런지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점도 같이 운영하셨어요. 아버지는 시골 우체국 국장,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맡아 하셨는데 현모양처이셨어요. 형제는 총 7남매, 4남 3녀예요. 첫째 오빠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했고, 언니는 현재 ‘승전무무형문화재’예요. 승전무는 이순신 장군 승전했을 때 가운데 북을 놓고 치는 것을 말해요. 통영 승전무¹ 예능보유자 한정자가 바로 내 위의 첫째 언니예요. 나는 셋째예요. 다른 형제들도 잘 자라서 결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몸이 아팠어요. 집안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나는 성격이 밝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나를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교육시켰어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

1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통영(총무)에서 전승되어 온 궁중무고형(宮中舞鼓型)의 북춤이다. 창사(唱詞) 내용의 일부에 이순신(李舜臣)의 충의와 덕망을 추앙한 부분이 있어 승전무라고 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하게 행동할 수 있게 키워주셨어요. 다리 절뚝거림을 못 느끼게끔 잊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안의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서로 사이좋게 잘 자란 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불구자 자식을 키우며
마음고생으로 살으신분

어머니 사진

●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나요?

몸이 아팠던 기억이 가장 커요. 5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치료를 다녔어요. 도립병원에 입원해서 1년 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 어떻게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골이지만 집안 형편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편이어서 부모님께서 물심양면 애써 주셨어요.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병이 계속 재발해서 병원

과 집,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었어요. 통영국민학교 48회 졸업생이지만 학교보다는 주로 집에서 공부한 시간이 길었어요. 중학교는 충렬여자중학교로 들어갔는데,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병원 생활이 더 길었어요.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7년 동안 아팠어요, 다리가. 그런데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어렵게 어렵게 병원을 다녔는데, 고등학교(통영여자고등학교 13회 졸업생) 1학년이 되니까 조금씩 좋아져서 아픈 다리가 굳으면서 아픈 게 조금 덜해졌어요. 다리가 굳으면서 짧아져서 절게 되었지만, 병원 안 다니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통영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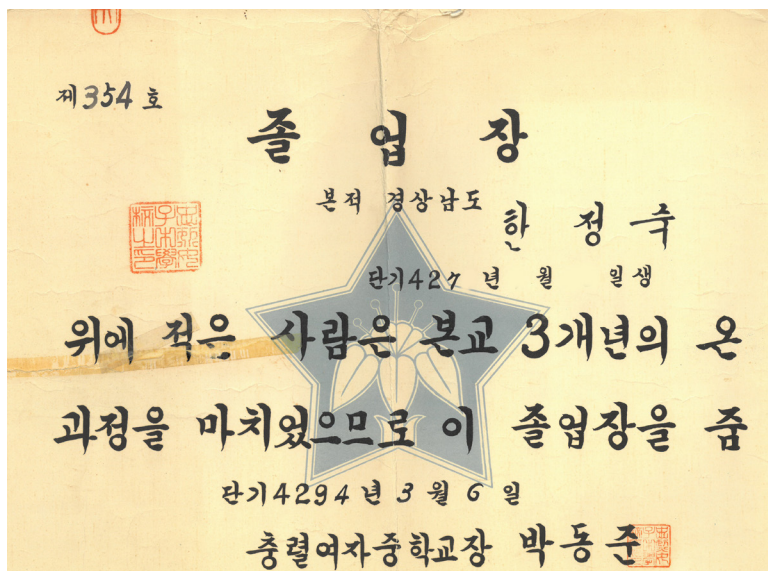


충렬여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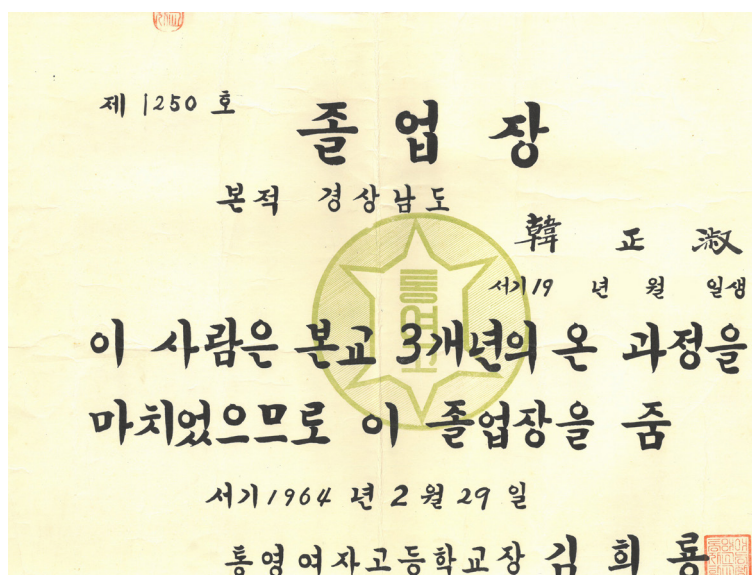


통영여자고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충렬여자중학교 졸업장



통영여자고등학교 졸업장

화가의 꿈

● 어릴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미술을 좋아했어요. 사생대회도 나가고. 경남 진주 개천예술대회에도 참가해서 가작상도 탔어요. 서양화를 할 수 있게 집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꿈은 화가였어요. 우리 집은 공부를 잘하는 자식만 서울 보낸다 그랬어요. 큰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영문과를 다녔어요. 나도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에 노력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미술학과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용 학교로 간 거지. 그림 그리고 디자인 하는 게 연결이 되니까 대안을 찾은 것이 미용학교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몸이 아프면서도 성격이 명랑하니까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친구들과하고도 활발하게 움직였어. 우리 먼 친척 고모가 하는 동네 미장원²에 가서 기계를 가지고 놀거나 만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미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모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몸이 아프니까 기술이 있는 편이 더 좋겠다, 그림이나 디자인도 좋지만 실질적인 기술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화(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³)로 간 거예요.

2 미장원은 파마, 커트,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주로 여성의 용모, 두발, 외모 따위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을 뜻하는 용어이다. 미용실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이 책에서는 구술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1990년 이전은 미장원으로 1990년 이후는 미용실로 단어를 통일하였다. 다만 ‘희미용실’, ‘지연미용실’ 등과 같은 상호명은 수정하지 않았다.

3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실용예술 특성화대학으로, 서울 도심 명동에 위치하는 7학부 19학과 전공 체제의 예체능 대학교이다. 1952년 9월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1년제 고등기술학

서울로 향하다

● 서울엔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왔어요. 196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해서 1년간 배웠어요. 1965년에 합격증(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학비는 큰 오빠가 도와줬어요. 그때 오빠가 공군 소위로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는 도와주었어요. 생활은 이모님 집에서 했는데 이모는 신광국민학교 교사였고, 이모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셔서 관사에서 살았어요. 이모네가 자식이 없어서인지 나를 딸같이 예뻐하셨습니다. (미술 관련) 학교에 못 가서 굉장히 낙심하니까 이모님이 이리더라고요. 기술을 가져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옆에서 권하시더라고. 처음엔 미용을 안 한다고 하다가, 또 막상해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뭐든지 잘하는 편이었어요.

또 나는 어쨌든 내가 장애인니까 오로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미술을 전공을 한 것이 (미용에) 조금 밀거름이 된 거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학교를 못 가니까 미용을 한 거죠. 사실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의상 디자이너를 하려고 꿈을 꾸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미싱(재봉틀)이 지금은 발로 안 하고 전부 손으로

교인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로 변경되면서 형식적 개교가 이루어졌고, 1960년 미용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미용전공과를 개설하여 2년제 기술학교가 되었다. 2008년 8월에는 정화예술대학, 2015년 3월 정화예술대학교로 개편되었으며 2019년 3월 기준으로 7학부 19학과 전공 체제가 완성되었다.(출처: 두산백과)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발로 눌러야 됐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지니까 힘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더. 그런데 서서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헤어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의 학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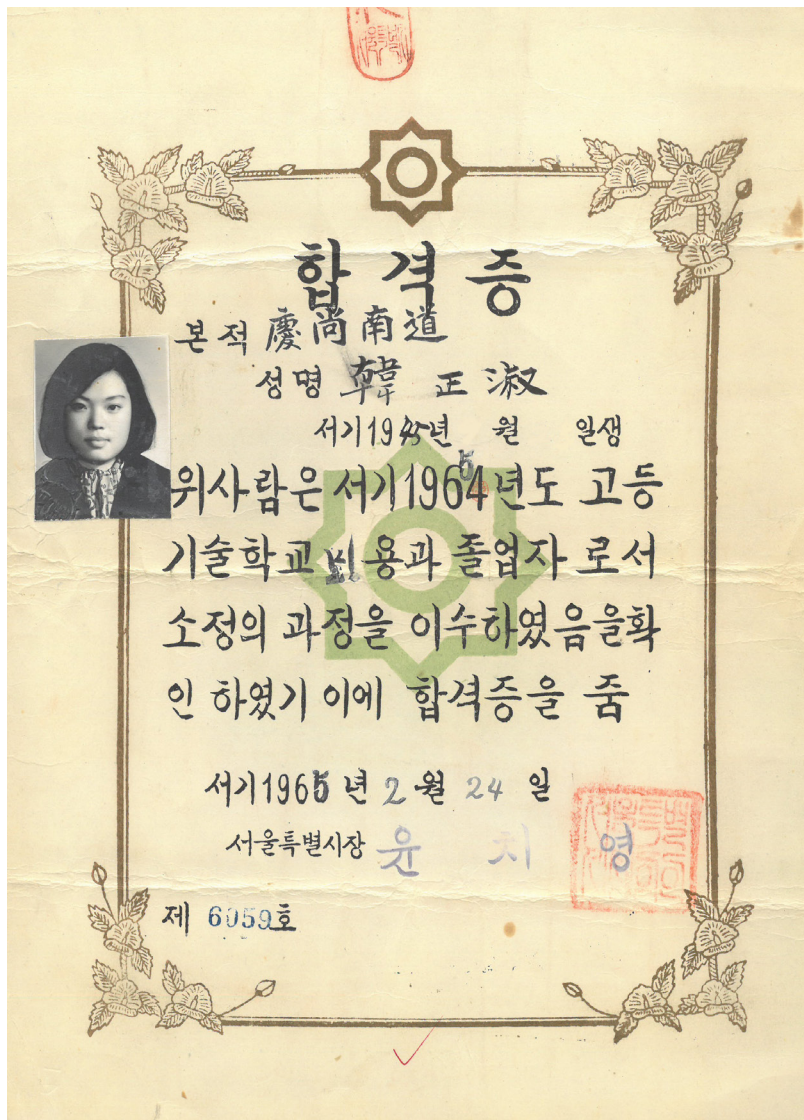
●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는 어땠나요?

학교는 이모의 집이 있는 을지로 6가에서 을지로 1가까지 전기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내무부 앞에서 내려서 남산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학교생활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당시에는 주로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생활 전선에 나가려고 학교에 나왔어요. 입학했을 때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었고 학생을 모두 합하면 120명 정도. 모두가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교장 선생님 이하 여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셨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정화는 철두철미하게 사회에 나가서 일원이 될 수 있게 수업을 잘 가르쳐주셨어요.

학교는 지금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판자도 아닌 양철 같은 건물의 학원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권정희 씨라는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인 한기정 씨가 정화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학원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은 정화예술대학으로 바뀌었어요.



미용기술 합격증 (1965년 취득)

● 학교에선 어떤 기술을 배웠나요?

지금 같은 드라이 기계는 전혀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 시절엔 쇠 고데(コテ)나 아이롱(アイロン)을 가지고 작업했어요. 그 쇠 기계와 빗, 핀셋(pincette)만으로 머리 모양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외에도 머리 자르는 법, 가위, 면도기를 사용하는 법, 마사지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다양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로 단순한 모양을 만드는 법이 대표적이었어요. 일주일 중 일요일을 뺀 6일 동안 매일 가서 머리와 찌름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지금은 연습용 가발도 잘 나오지만, 그때는 머리를 연습할 가발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길게 자른 머리를 묶어서 벽에 걸어놓고 그것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 머리에 대한 질이나 형태를 아이롱 기계 하나로 만드는 법을 공부했어요. 그 머리로 습득이 되면 직접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고 머리를 만졌어요. 두 사람이 짝꿍이 되어 서로 머리를 만지며 연습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배운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했고,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좋았었어요.

배움은 아주 단조로운 편이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배우기만 하는 입장이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미용계도 많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때는 기술이 단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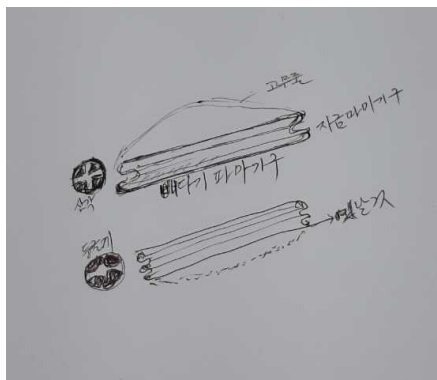
60년대에는 아직 일본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미용 용어에도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고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마는 것은

우찌마끼(うちまき), ‘안말음’이라고 그래요. 다음으로 거꾸로 뒤집는 것은 소또(そと), ‘겉말음’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안으로 말거나 겉으로 말거나 두 가지 종류였던 것이에요. 컷을 하는 것, 자르는 것은 원랭스(one length)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일자로 자르는 것을 부르는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 파마를 불로 했어요. 아마 너무 오래전이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 미장원에 가면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해줬어요. 그 당시의 파마는 쇠로 만든 기계를 석탄 속에 집어넣어 불로 익혀 롤(roll)로 마는 것이었어요. 불에 데워서 집게로 말아서 익히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법이어서 머리를 할 때 자주 데여서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엔 그렇게나 옛날 방식은 아니어서 주로 고데로 머리 모양을 고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고데를 잘 해요. 고데를 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으로 마는 거라든지, 올림머리 같은 것은 셋팅으로 말

고 모두 다 고데로 해요. 그 기계를 습득 할 수 있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또 파마도 약을 발라서 뼈다귀(파마롯드의 한 종류, 고무줄을 양 끝 홈에 끼워서 고정한다)로 말았어요.



뼈다귀 룯드 지금 사용하는 것과 옛날 것
(구술자 그림)

12

내 공간, 바니미용실을 열다



을지로에서 시작해 삼선교 일류미용사가 되기까지

● 내 미용실을 열기 전에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화학교 졸업하면서 1965년도에 미용사 자격증을 땀어요. 그때 을지로6가에 이모집에서 지낼 때 거기서 보조⁴로 취직을 했어요. 이 모님이 다니는 미장원 원장이 소개를 해줘서. 그때 첫 월급이 500원이었어. 일 년 넘게 있었죠.

거기서 하다가 금호동에서 일을 했지. 지금은 금호동이 엄청나게 변했지만 그때는 금호동이 아주 산동네였었어. 얼마나 빈촌인지. 온

4 미용사 단계가 보조, 중상, 일류로 나뉘는데 을지로에서 '보조'('시다'라고도 함)로 시작해서 나중에 금호동에서 '중상'으로 일하며 미용기술을 배우고, 삼선교에서 '일류미용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수가 없어서 찬물에 밥 해먹으니 손가락이 붙어요. 그런데 근처 2층에 괜찮은 미장원이 하나 있었어요. 원장님이 전라도 분인데 아주 기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서 미장원을 옮겼어요. 그분한테 내가 기술을 많이, 잘 배운 거 같아요. 손에 힘이 좋아가지고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어요.

당시에 원장님 동생이 나랑 동갑이라 둘이서 쿵썩이 맞아 재미있게 지냈어요. 같이 월남 비둘기부대⁵에 펜팔(pen pal)도 하고 둘이서 극장도 같이 가고. 고생된 생활이지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무서운 추위에도 냉방에서 유담보(湯たん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주머니. 구술자 주: 미군 물통에 끓는 물을 넣은 것)를 끼고 자면서 기술을 습득했어요.



서울사진아카이브 금호동 1961년 한강주변 도로신설 공사

5 1965년 3월 월남공화국의 건설(建設) 지원부대로 파병된 건설지원단이다. 1973년 3월 귀국(歸國) 시까지 비둘기부대는 월남에서 1,753km에 달하는 도로와 173개소의 교량(橋梁) 건설 등을 통해, 월남에서의 군사작전과 산업발전에 초석이 되었다.(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 성북구에 오신 건 언제였나요?

금호동에 있을 때 미용재료상⁶ 사장님 소개로 왔어. 삼선교에서 일류미용사로 처음 시작하고. 성북구에서 첫발을 디딘 게 미장원인데, 지금은 그 미장원이 없어졌어요. 이름이 희미용실 그럴 거예요. 오래 전의 일이어서... 삼선교에서 시장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일할 때 ‘다리 아픈 미용사’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너무 많았어. 동네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명절이나 입학식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끝이 없이 왔어요. 그날 피곤해서 박카스 두 병을 마시고 어지러워 쓰러진 기억이 나네요.

보문동에서 내 미용실을 열고 자리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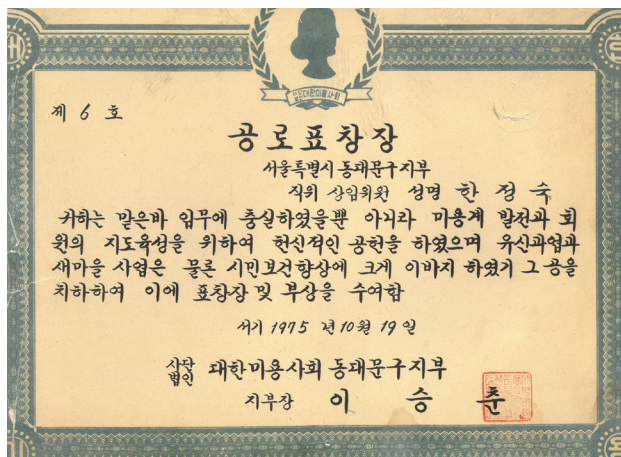
● 내 미용실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삼선교 다음에 보문동에 있는 미장원(지연미용실)으로 와서 일했어요. 그 미장원이 지금 5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1년 조금 못 됐을 때에, 원장님이 폐병 환자였었어. 그래서 미장원을 내놓게 되어서 내가 인수를 했지요. 그때 돈으로 200만 원. 내가 빚을 내어가지고 인

6 구술자 주: 당시 자전거를 타고 미용실을 다니면서 미용 재료를 팔았다. 미용사를 이직시켜주는 소개소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미용사는 미용실을 옮길 때 직급과 월급이 오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중상으로 있다가 이직을 하면서 새 미용실에서 일류미용사가 된다.

수했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빚 갚는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리고 내가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빚도 갚고 미용실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 동네가 동대문구였어요. 동대문구일 때 대한미용사회 지부장이 나에게 공로상을 준 게 있어서 내가 알았어요. 그때가 내가 스물네 살 땐가. 정화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스물네 살 때 되었어요. 그때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편입이 됐어. 그래서 지연미용실이 성북구로 주소가 변경되었어요.



1975년 대한미용사회 동대문지부로부터 받은 공로표창장이다. 당시에는 보문동이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지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975년 보문동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관할로 되었다.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한 3, 4년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에 여섯 시에 일어나서 보통 밤 한 시에 잤으니까. 그때는 사이렌이 불 때여서 밤 열두 시에 웅-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여섯 시 되면 또 문 열고. 여섯시부터 시작해서 밤 열두 시까지 자본 적이 없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동네니까 밤중에도 손님들이 좀 있었어요. 가정주부들이 낮에 머리를 하러 오고, 저녁에는 동대문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동대문시장 사장님들이 퇴근하면서 머리카락 오기도 하고. 그때는 미장원이 많지도 않으니까는 아주 손님이 그치질 않았어요. ‘다리 아픈 (장애자) 미용사’라고 내가 소문이 났어요. 손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어쨌든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잔치집 가는 분들, 돌, 생일, 결혼식…

● 미용실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인수하기 전에 지연미용실이었어요. 인수하고 나서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 중간에 바꿨어요. ‘바니미용실’로 바꿨어. 왜냐하면 큰 오빠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바니’라는 이름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미국에서 바니걸스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바니미용실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큰 오빠가. 바니미용실로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깐 바꿨어요. 그때에는 구청에서 외래어라고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 그때가 8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바니로 바꿨어요. 지연미용실로 하니까 손님이 좀 없는 거 같애. 그 이후로 계속 바니헤어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 ‘룩인헤어’라는 이름도 썼고요. 성북구에서는 바니미용실이 나

의 렛테루(레테르 혹은 상표), 나의 분신같이 되었어요.

● 당시에 미용실 위치는 어디였어요?

처음에 보문동5가 192. 어딘가 하면요. 지금 바니미용실에서 길 건너 곧장 올라가면 꼭대기. 지금 자이아파트 조금 못 가서 거기 있었어요. 동신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유명한 게 없어. 병원 앞인데 병원도 다 없어지고, 앞에 세탁소, 구멍가게가 있고, 그 미장원은 쪼꼬맸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처음에 동혜의원이었다가 동혜소아과가 되었어요. 보문동6가랑 5가 경계예요. 거기 있다가 좀 더 보문동5가 쪽으로 내려갔지.

그때 시다(した, 보조)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잘 되니까 일류미용사를 또 한명 두었지. 쪼꼬만 미장원에서 일류미용사 하나, 보조 하나, 나 이렇게 셋이서 아침, 저녁으로 풀가동을 했었어요. 미용사들은 한 사람은 출퇴근하고, 보조 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랬어요. 그 직원이 우리 미장원에 한 12년을 근무하다가 시집을 갔어요. 우리 미장원에 오면 보통 10년, 3년, 5년 이렇게 있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원만하게 미장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많은데, 깍쟁이가같이 할 거 있어요?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형제간처럼 하니까 미장원이 잘 되었어요. 거기 병원 앞에서 5가 쪽으로 내려올 때는 직원이 일곱 명이 있었어. 나 빼고 여섯 명이었었어. 일곱 명이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2020년 현재 남정약국과 그 골목의 모습

5가 미용실은 6가 쪽에서 쪽 내려와서, 큰길이랑 만나는 사거리에 남정약국이라고 있죠? 그 약국에서 건너편 둘째 집.(보문동5가 156-3) 거기 옛날에 다 한옥집이었어. 그때 그 시절에는 건물이 다 한옥이었어요. 그 집을 전세로 구해서 한옥 건물 앞을 오픈시켜가지고 미장원을 기다랗게 했어요. 미장원이 보통 기다랗잖아. 의자를 거울 앞에 놓고. 일곱 명이서 일류가 둘, 나까지 셋. 그다음에 밑에 중상이 두 명. 그때는 중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조 다음을 중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미용사 밑에서 보조를 하다가 일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 하여튼 일곱 명이서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 장소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하루는 꿈에 초가지붕에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꿔는데, 그날은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많이 한 기억이 나네요.



1976년도 보문동5가 한옥집 시절에 구청에서 받은 표창장

● 남정약국 맞은편에서 하시던 미용실은 언제 접으셨어요?

지금 남정약국 자리 옆집에 2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보문동5가 252-1) 한옥집을 접으면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름을 ‘바니 미용연구실’이라고 붙였어요.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손님을 좀 적게 받으려고 이름에 ‘연구실’을 붙였는데, 그래도 손님이 더 많이 왔어.



보문동5가 252-1 바니미용연구실 앞에서 지인과 함께

그 2층 건물 집이 일본식 집 같았어요. 2층 주인집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다미 방이 하나 있었어요. 1층에 바니미용실하고 옆에 주인집에서 하는 식품점이 있었어요. 식품점 이름이 보오당이었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하시던 가게인데 과일, 채소, 과자… 다 팔던 가게였어요.

미용실 옆에는 영순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당시에 중국집을

운영하던 중국인은 돌아가시고 그때 젊은 주방장이 이어받아서 지금도 탐골승방(보문사) 가는 길 쪽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 주방장 분도 이제 70대지. 이제는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해요.



1985년도 보문동5가 '바니미용연구실' 시절에 구청에서 받은 표창장

● 보문동4가 지금 자리로는 언제 오셨어요?

남정약국 자리 집을 전화 상회, 전화 장사하는 아저씨가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집을 헐 때 나는 보문동4가로 온 거예요. 미장원을 하던 내 선배가 보문동4가에 미장원을 판다고 해서 내가 그 집을 샀어. 거기서 미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장원 두 군데(현재 위치와 5가 바니미용연구실)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차린 미용실에 종업원 한 사람을 두고 왔다 갔다 했어요.

보문동4가에 왔을 때에 내가 한옥집 한 채를 뜯어가지고 안채에서 살면서 미장원을 오픈을 했는데, 잘됐어요. 여기도 잘되고 해서 내가 옆의 집을 샀어요. 복덕방 집을. 그러니까 집 두 채를 다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채에서 살림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살다가 이것(한옥 두 채)을 뜯어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정약국 자리에 있던 미장원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위치의) 집을 짓는다고.

여기서 두 번째를 하다가, 세 번째 미장원을 또 오픈을 했어요. 어디냐면 돈암동(성신여대 근처)에 룩인헤어라고. 거기가 한 40평 됐어요. 직원 열두 명 됐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곳은 1년도 안 돼서 팔았어. 너무 힘이 들어. 직원이 열두 명이 되니까. 작은 데서 하는 거는 형제간 같고 내 식구같이 지내다가 나는 사업하는 기질은 안 되나 봐요. 직원 열두 명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관리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시에 미용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장원도 세 개를 운영하면서 지회장 일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돈암동은 1년 만에 팔았어요. 내 체질이 이렇게 가족적인 미장원은 하겠는데 사업가처럼 대대적으로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직원 관리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지회장으로 일 할 때 회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하겠는데 직원 관리는 또 다르잖아요. 사업체니까. 그러니까 매상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내가 접었어요. 두 개만 유지하면서 계속했지.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지었어요. 이 건물 짓기 전에는 한옥이었어.

그러니까 한옥이 두 개. 한옥을 하나 사서 미용실을 했는데 손님이 많아 바쁘다 보니까 옆에 집을 내놓은 걸 또 사서, 두 개를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한옥 두 채 자리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20년 됐는데. 그 집을 짓고 5가는 정리한 거죠.



한옥 두 채 자리에 건물을 짓고 새로 개업했을 때 모습



2020년 현재 바니미용실 내부모습

가장 기억에 남는 미용실

● 미용실을 여러 군데 운영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보문동5가에서 운영한 미장원이 가장 기억에 남지. 네 개를 내가 운영해 봤을 때, 사업적으로 시작해 본 거는 돈암동에 있을 때에 직원이 14명, 보문동 6명해서 총 20명 넘었어요.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재미있게 지낸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보문동5가에서 할 때가 손님도 많았지만은 주로 가정적이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미용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동네 분들이 다 언니 같고, 동생 같고, 부모 같고. 말하자면 가족 분위기의 미장원을 많이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쌓아 올라간 거지. 그게 두 번째 미장원이고. 첫 번째 한 거는 내가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개업을 해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두 번째가 보문동에서 종업원이 그때 7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손님과 더불어서 재밌게 했지. 그런 분들이, 지금도 가끔오시데 “나는 이제 미용실에 많이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니가 오래간만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옛날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추억이 있었던, 5가에서 할 때가 제일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동네 언니들이 김장하면 가져다줘서 김치를 오랫동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과거 바니미용실의 위치를 지도로 그린 그림

● 같이 일한 직원도 많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직원이 계세요?

우리 집에 12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두었는데, 보통 5년, 10년, 12년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집에 12년 근무한 사람이 결혼하면서 그만두었는데 어릴 때 와서 자매 같이 있다가 갔어요. 같이 고생하면서 그 일이 기억에 남아요. 보통,

5년 8년 그렇게 있던 직원이 많아요. 창원에 미용협회 지부장이 된 직원도 있어요. 700개 미장원을 거느린 회장이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참 반갑더라고.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후배들을 만나면 너무 즐겁고 좋고 그래요.

그때 내가 20대면은 그 사람들은 18, 19살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나 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니까. 지금은 다들 나이가 많죠. 그때 배우던 후배들, 그런 후배들이 많이 성장해서 지금 60대, 50대가 되어서 자리 잡고, 강원도 원주, 전라도,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감귤을 보내주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바니미용실의 뛰어난 기술과 엄격한 교육

● 바니미용실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기술이죠. 기술이 최고예요. 머리를 한 번 해 놓으면 머리가 금방 망가지는 미용사가 있고,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걸 기교라 그러거든. 기교. 이게 손재주예요. 말하자면 손재주도 미용사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테크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예쁘게 하는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 있잖아, 고데 하면 금방 흐트러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단단하게 일주일 가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

일을 만족하게 해드리면 손님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몇십 년을 쫓 계속해서 한 거는 손재주는 있나 봐요. 손님이 아주 꾸준하게 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주로 직원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남한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잘 하라고 직원들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최근에 우리 제자를 만났는데 원장님 밑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웠다고 그래. 다른 데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게 참 고마웠다고 그래 이제는. 왜냐면 너무 손에 익어버리니까 잘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보가 많이 없던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연수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스타일 연구를 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응원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죠.

미용실 주변 동네 풍경

● 미용실 주변 동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미장원 주변이 골목 상권이니까 다 주변에 식품점, 양장점... 옛날에는 다 양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전화상회. 그러니까 전화기 파는 데가 있었고. 80년대에는 성북전화국이 있었어요. 전파사, 전기 고쳐주는 그런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지.

전화만 따로 파는 전화가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전화 한 대가 백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전화가 있으면 부자였는데… 그런 전화상회, 양장점, 식품점… 골목 상권이에요. 주로 가정을 상대로 해서 그런 상가, 상품들이 많이 있었죠. 동네 사람이 주로 많이 오고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죠. 이 동네가 저기 광덕주유소(SK주유소 광덕점), 그쪽 뒤쪽에는 전부 다 한옥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다 변해서 없어. 30년 전만 해도 거기가 한옥이 아주 짝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서서 없어졌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주로 많이 손님으로 오는 거지.

여기가 동대문이 가까워요. 지금 밀리오레 생기기 전에 거기가 예전에 평화시장이었어요. 그 평화시장이 지금은 크지만 그때는 쪼그맣았잖아요. 평화시장에서 여기가 가깝잖아요. 신설동, 보문동. 이쪽 라인에 평화시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동대문 주위로 상점들이 많고 종묘 옆으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보문동의 변화

● 보문동에 처음 미용실을 열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동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옥도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주부들이 미장원을 많이 찾았는데

데 지금은 상가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워낙에 단골이 잡혀있으니까 큰 변화는 없어요. 다른 미용실이 오픈했다가 문 닫고 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옛날은 한옥집이 가정집이니까 고정적인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님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은 오토바이가 다니고 상가가 많이 생겨서 손님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고정적인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른 미용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 집은 고정적인 손님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내가 했을 때 그 손님이 지금도 꾸준히 오고, 젊었을 때 오던 손님이 시집가서 아이 데리고 오는 손님들도 아주 많아요.

지금은 며느리가 미용실을 받아서 여기서 한 지가 14년 됐어요. 14년 동안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다른 미용실은 차렸다가 3년, 4년 안에 문 닫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예요? 많아요. 계속 바뀌고 그렇죠. 바니미용실하고 나하고 오래 있었던 한 30년 된 미용실 하나 여기 밑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은하미용실, 백합미용실 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한 3명, 4명 있어요. 그분들은 큰 변화 없이 조그마한 한옥집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죠.

옛날에 보문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보문시장이 지금 돈암시장 같았어요. 손님이 외지에서 올 정도로 상품도 좋고, 야채와 생선이 싱싱할 정도로 형성이 잘되어 있었고 컸었어요. 그곳에 보문하우스토리 아파트가 생겼죠. 그리고 재개발 되면서 보문시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북천도 옛날에는, 50년 전에는 시골 가면 있는 개울물처럼 완전히 시골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개천 옆에 작은 한옥집들, 안암동 저쪽을 가면은 다 한옥집들, 지금은 도시적인 느낌으로 변화되었지요. 내가 살던 데가 보문동6가고 그쪽에는 집들이 다 좋았어요. 한옥도 다 고래등 같은 집들이고. 대학교수와 부자들이 살았으니까.

13

미용실 생활과 일상



미용사 급여와 미용 기술

● 미용사가 되려면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꼭 있어야 했나요?

자격증이 없어도 취직이 됐어요. 그때는 말하자면 시다(した). 보조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도 학원을 나온 보조급이 있고, 학원을 안 나온 보조급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을 안 나온 사람들은 설거지, 쉽게 말하면 청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가난한 집 딸들이 시골에서 밥만 먹여주어도 서울로 보내는 시대라 기술 배우려고 서울로 많이 올라오던 시대였어요.

● **미용 일을 시작하셨을 때 월급이 얼마나 되셨어요?**

60년대 한 달에 첫 보조 월급이 오백 원이었어요. 내가 을지로에서 처음으로 보조로 취직했을 때(1965년) 첫 월급이 오백 원이었어요. 그다음에는 칠백 원으로 올려주고 천 원 받고 그랬어요. 조금씩 올려주었지. 60년대에 밑에 보조하는 사람은 오백 원, 삼백 원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60-70년대에 많은 미용사들이 미장원에서 먹고 자고 그러죠. 미장원에 취직을 하면 그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밥 얻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을. 미용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어요. 고생한 미용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밥만 주면 다 취직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용사마다 레벨(level, 수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학원 기술 배워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술이 없어도 미용실에 들어가서 밥만 먹여주고 청소만 해도 목에 풀칠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기술을 배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 **학교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보니까 고생이 많았었지요. 아무리 집에서 고생을 안

해도 남의 집에 가면은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학교 학생이나 교수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시절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었어. 60-70년대에는 왜냐하면 체계가 없으니까. 배우기 위해서 미용사들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요.

미장원에서 고생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하기까지가 보통 3, 4년이 걸려요. 그 과정이 지나야만이 기술이 손에 익어요. 지금 내가 오랜 세월을 해보니까 그 기술이 손에 익은 기간이 보통 1년, 2년 갖고는 안 돼요. 손에 굳은살이 박혀야만 쇠고데를 자유자제로 돌릴 수 있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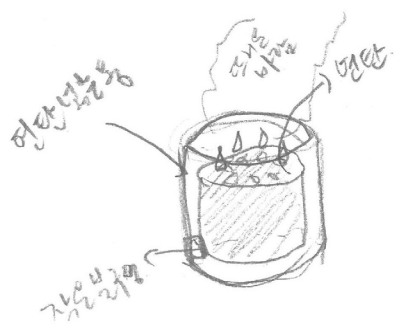
● 당시 미용실에서 썼던 미용 기술이나 기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나요?

일본에서 드라이기가 들어온 지 몇십 년 됐지만, 우리 시절엔 지금 여러분이 쓰는 드라이기나 아이롱 기계, 전기 고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연탄불에 찍어서 쓰는 쇠고데로 했어요. 아니면 난로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 시절엔 드라이기가 없기 때문에 머리 말리는 것도 신문지 갖고 말렸어요. 연탄불이 있잖아요. 구공탄, 십구공탄. 사람을 앞에 앉혀 놓고 신문지를 머리 뒤에 씌워. 아래쪽에 연탄불을 갖다놓고 이렇게 신문지 안으로 머리카락을 털면서 말려주고 그랬어요. 그게 60-70년

도 그 시절에는 연탄불로 갖고 머리 말렸어. 그만큼 어려웠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니까 지금 같은 머리 스타일이 아니고 바글 바글 묶는 파마, 그거 아니면 고데를 가지고 웨이브를 넣어요. 고데가 안으로 마는 ‘안고데’(안말음)가 있고 바깥으로 마는 ‘겉말음’이 있어요. 그러면 안고데로 말아가지고 곁에 짹짹 눌러서 이렇게 쪽빼면은 또로로 말려오는 거. 이런 거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잘 하는 사람이 기술이 좋은 건데.



연탄불을 사용하여 머리를 말리는 모습

어쨌든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드라이기가 들어왔어. 드라이 들어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밤낮 연탄불로 갖고 하다가 드라이가 생기고 그러고 다음에는 전기 고데가 들어오고. 기계 발달이 되면서 머리하는 형태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기본기가 잘되어 있으니깐 변화가 생겨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대 미용인들은 이 쇠고데를 못해. 쇠고데가 무겁고 돌리기가 어렵잖아.

처음에는 연탄 하다가 그다음에는 가스렌지. 바나(버너)라고 있잖아. 나가면 들고 다니는 거. 그걸 놓고 했어요. 거기다 불을 켜서 고데를 달곤 다음에 물수건에다가 적셔서 식혀갖고 사용했지요.



쇠고데와 가스버너. 바니미용실 소장.

그러고 미용사가 머리를 만질 때 굉장히 집중해야지, 산만스러우면 안 돼요. 손님 머리는 소중한걸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다뤘다가

는 큰일 나. 이 쇠고데가 조금만 뜨거우면 머리가 다 똑똑 떨어져 나갔어. 이 뜨거운 고데가 살을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만지면 머리카락이 똑 떨어져 나가버려. 쇠고데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똑같아야지,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면서 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이것을 조절을 잘 하는 기술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용사는 기술자가 돼야 해요. 오로지 손님 머리에만 집중해야 하고. 남의 머리를, 사람 인체를 만지는 사람이 산만스럽고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머리가 제대로 안돼요. 그만큼 집중력을 요하는 거니까.

● 당시 어떤 머리 스타일이 유행했나요?

그때 옛날 머리는 꼬부랑 꼬부랑 한 거요. 웨이브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같이 전기 고데기로 머리 피거나 웨이브 단발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우찌마끼(うちまき, 안말음), 전부 다 웨이브. 딱 묶어서 S컬로 만드는 포니테일(ponytail)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세월에 흐름에 따라 스타일도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모양새가 변해요. 패션과 헤어는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미용실 운영

● 고향인 통영에 가서도 미용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통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고향이니까 한 번씩 가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언니랑 지내다 와요. 나는 여기 서울이 바쁘니까, 항상 생활이 바빴거든요. 지금도 또 새로운 도전, 중앙회 일로 한 3년 정도는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통영 가서 미용실을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통영에 가보면 항구도 시라 후배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더군요.

● 옛날에 그렇게 바쁘셨으면 식사는 어떻게 챙겨 드셨어요?

식사도 다 미장원에서 했어요. 처음에 70년대에 보조하고 둘이서 할 때, 그때는 열악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주로 통영 집에서 반찬 같은 것도 다 해서 보내주고요. 밥만 하면 반찬이야 뭐. 옛날에는 김치, 깍두기 한 개 갖고 먹고 살았는데요. 그 시절에 솔직한 이야기로 미장원에서 손님들이 밀려있으니 밥 한 숟가락에 물 부어가지고 김치, 깍두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밥 후루루 말아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후루루룩 마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나와서 또 손님 받고 그랬어요. 많은 미용사들이 위장병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마약 냄새, 독한 염색약 속에서 많이들 고생했

었지요. 그때는 환풍기가 없었을 때라. 미용사들이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었어요.

●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모님이 신광국민학교 선생님이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다 식모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찬 해서 나를 도와주고 그랬죠. 나는 그렇게 못 먹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 연배들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장원을 하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70대 미용사는 70년대 미용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까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자식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훌륭한 미용인이 된 친구들도 많아요.

미용실에 찾아온 다양한 손님

●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손님들이 머리 하는 동안 무얼 하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손님은 잡지를 많이 보았어요. 그 시절(60-70년대) 미장원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음악 감상 이런 것도… 다른 것 틀어주는 것도 없

고. 잡지는 옛날에 ‘여성중앙(女性中央)’이라고, ‘여성동아(女性東亞)’라고 책이 있어요. 한 두, 세 권 사다 놓으면 한 달 내내 봐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니까는 “야 뭐 어쩐냐”, “아들 뭐 어쩐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이)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진거지. 지금은 우리 며느리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손님 예약도 받고 그러던데요.

아! 라디오도 있죠. 라디오를 틀어놔요. 미장원에는 음악밖에 안 틀었어요. 뉴스 같은 거 안 듣고 음악만 틀었는데, 손님 많을 때는 음악도 안 들어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손님이 머리카락에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분, 1시간씩 걸리니까, 보통 손님 다섯 명에 미용사 두, 세 명만 해도 여덟 명이잖아요. 그럼 미장원 실내에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지면 음악 들을 시간이 어딴데요. 너무 바쁜데. 그러면 손님들은 서로 길, 흥사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었어요. (미장원이) 인생사 복덕방 같은 곳이 되었어요.

● 바니미용실에 어떤 손님들이 오셨나요?

제일 좀 꼽을 수 있는 분들은 동네 유지 사모님들(은행장 부인). 지금 돌아가셨는데, 3번 버스 사장님 부인. (지금 있는) 3번 버스가 그때도 있었어요. 남양나이롱 전무 사모님, 군인 별자리 준장 사모님, 교수 부인들 이런 사모님들을 내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용사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주로) 하고요.

처음 오는 손님, 소개받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 집에

분명히 다리 아픈 미용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라고 있으면, 나는 딱 보고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가만있으면 말도 못하고 가만 있다가 내가 딱 움직이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고) “저 머리 좀 해 주세요” 이래요. 그런 손님의 머리를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해서 또 오시게 하는 거죠. 지금도 오시는 그때 단골손님 한 분이 지금도 오세요. 90세예요.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그 손님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요.

●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신가요?

여섯 시에 여기서 수원(水原)까지 출근하는 여자분인데, 당시에 도청에서 비서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 머리를 2년을 아침마다 빗겼어요. 그 사람 머리하는 시간이 다섯 시 반이에요. 그분 머리 빗기기 위해서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여섯 시에 출발하는데 30분은 머리를 해야 되니까 다섯 시 반 되면 딱 나와요.

미용이란 직업이 나의 천직이고 내 삶의 전부였어요. 잠만 자고 나와서 미용실에서 다 생활을 할 정도로.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은 성북동(城北洞) 대원각⁷ 요정(料亭)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옛날에는 요정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대원각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한 스무 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미용실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7 성북동의 사찰 길상사(吉祥寺) 자리에 있었던 고급 음식점이다. 군사정권 시절 이름난 고급 요정이었는데, 주인은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영한이었다. 김영한이 법정스님의 수필 ‘무소유’에 크게 감명 받아 대원각 전체를 불교도량으로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하였고 법정스님은 대원각을 사찰로 바꾸면서 김영한의 법명인 ‘길상화’를 따서 ‘길상사’라 이름 지었다.

명 (미용실로) 출근하면 다음 사람 출근하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머리하는 시간은 보통 두 시에서 네 시까지예요. 한 시부터 오면은 한 시, 두 시, 세 시, 네 시 다 끝나쳐 줘야 대원각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나와 일류 미용사 두 사람과 같이 아가씨들 머리를 맡아서 했죠. 내가 날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었으니까는 좋아했어요. 머리를 이쁘게 해주니까 그렇게 왔겠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왔었어요.

● 손님들이 만족하고 또 다시 바니미용실에 찾아왔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머리라는 것은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하고 어디를 갈(장소) 것인가, 그분의 인품이 어떻게 조명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가는 것도 있고 회갑잔치, 돌잔치 가는 것도 있고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걸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 나이, 연령과 옷 색깔. 옷하고 얼굴하고 이게 매치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많이 할 때는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지만 예약 손님은 미리 준비를 해야죠. 무엇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예약 손님들은 변함없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여전히 (손님이)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건강해서 좋고. 많은 인연 속에서 만난 분들이 그래도 인연은 오랫동안 가는 게 감사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56년 동안에 미용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북구 보문동이 좋아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용 생활과 삶은 이어왔는데 세월이 흘러 흘러 변화무상하게 달라져 가지만 보문동에서 미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 **대원각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스타일로 해드려야 했을 텐데요. 스타일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내 아이디어예요. 미용인은 손재주가 다 달라요. 기능(技能)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헤어디자이너들은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자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앉았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 한복을 입을 것인가, 또 양장을 한다고 할 때는 양장에 맞춰서 머리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와도 그 사람의 용모에 맞춰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하던 걸 똑같이 못 만들어요. 한 가지 머리를 그대로 못 만들어. 그대로 못 해요. 자꾸 변하지요.

예를 들어서, 업스타일(up style)을 하면은 등분(等分)이 있어요. 포니테일 같은 거는 하나로 묶어두고, 주로 슬라이스(slice) 선을 가를 때 두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세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넷, 다섯, 이게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등분을 내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옥이엄마>라

는 영화가 유행할 때는 <옥이엄마(1965)> 머리가 유행했어요. 작품을 내가 머리 속에 상상을 하고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해주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머리를 할 때는 이 사람의 얼굴과 몸맵시하고, 어디에 가서 쓰일 것인가. 그러면은 그 사람에 맞춰서 머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주제가 예를 들어서 물결이라고 한다면,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이다. 이런 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단조롭게 하면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해내야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간편하면서도 예쁘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머리할 때가 재미있어요. 피곤하지 않고 머리 예쁘게 만들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날마다 머리를 바꿔줬으니까, 그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으니까, 머리하고 미용실 문을 나설 때 즐겁고 기분 좋게 나갈 때 뿌듯하죠. 미용실이나의 그림 속의 무한한 도화지가 되었으니까요.

● 헤어디자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셨나요?

그림을 펼쳐놓고 그리는 것보다도 보면서 상상하고 또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작품,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날아가면은 형태를 머리로 만든다던지. 꽃을

보면 꽃을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머릿속에서 하는거지. 머리 자른 것으로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지금은 헤어스케치가 나왔지만 그때는 없었지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며 그림(헤어디자인)을 구상하죠.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를 하고 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변화무상한지 할 때마다 신기해요.

● 단골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지금 구십이신데, 나한테 머리를 만지신 지가 45년 가까이 된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됐어. 지금도 오시고 사진도 있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데 가발을 만들어서 붙여서 하니까, 말하자면 머리를 안 하면은 구십 대인데 머리를 하면 칠십 대처럼 보여요. 그렇게 만 들어드리니까 지금도 평창동(平倉洞)에서 오세요. 산 증인이야. 그 분이 우리 집에서 최고로 오래 하셨고요.

이분보다 먼저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집에 있어요. 그분이 제일 나한테 오래 했던 분이고. 보통으로 한 40년 넘게 한 사람들이 지금 몇몇 있어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그분들 머리는 다른 사람이 못 만져요. 왜냐면 쇠로 갖고 하는 쇠고데. 지금은 다 전기 고데로 하잖아요? 근데 그 쇠고데로 하는 그 기술은 젊은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 연배만 하지. 근데 그게 굉장히 머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 하고 가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유지하려고 안 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의 생

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지도 않고 우리 집에 와서 감아요
지금도. 하하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 기억에 남는 다른 손님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도 나한테 오시는데 정경부인의 며느리요. 정경부인으로 지내
셨던 분의 며느리가 나한테 머리를 하러 왔어요. 그분은 여기서(보
문동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사시는데 그 며
느리가 나한테 머리를 했어요. 그 집에는 관리들이 많이 오더라고
요. 그분이 처음에 미장원 왔는데 하얀 모시 저고리를 입고 오셨더라
고요. 얼마나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분이었는지 그분이 나오
시면 하얀 모시저고리 덕분에 동네가 흰-해졌어요. 정경부인(시아머
니)이 돌아가시고 나니 며느리가 나한테 파마를 했어요. 정경부인은
파마는 안 하고 계시다가. 며느리도 한복만 입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며느리 분이 원피스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르기는 다르구나 싶었죠. 지금도 오세요.

●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 온 적도 있을까요?

옛날에 백설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에 아들 전영록 씨 집이
보문동에 있었어요. 백설희 씨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전영록 씨가
장가가기 전에 보문동6가에서 더 내려가서 신설동(新設洞) 쪽에 집

이 있었어요. 집이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굉장히 집이 좋았어요. 단독 주택인데 정원도 있고 풀장도 있고 그랬어요. 백설희 씨는 어디 갈 때 우리 집에 오시고.

그리고 보문동에서 촬영하고 개천가에 촬영하고 이럴 때는 임예진 씨도 우리 집에서 머리로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노경희 씨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 분도 오셨고요. 연예인들도 제법 했어요.

● 손님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불만 가지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직접 다 해드렸던 분들인데, 협회 일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미장원을 미용사들에게 맡기기도 했는데 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했어요. 손님은 기술자(미용사)가 바뀌면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시는 분도 가끔 있지요. 항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헤어스타일은 작품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여가생활

● 미용실에 쉬는 날이 있었나요? 어떤 요일에 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죠. (70-80년대에는) 성북구청에서 휴일을 정해서 쉬게끔 공문이 오면 위생 관련 서비스 업종이어서 준 수하며 지내고 했어요. 왜냐면 위생 관련이니까.

지금은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일요일 이렇게 있으면, 미용실들이 서로 날을 정해서 번갈아 쉬 거예요. 그 시절에는 미장원이 10개, 12개 넘어가지요? 그러면 쉬는 날을 쪼개요. ‘반은 첫째, 셋째 주에 쉬고, 나머지 반은 둘째, 넷째 주 쉬자.’ (1동, 2동 나누어서) 이렇게 합의 하에 쉬는 거예요.

우리 미장원이 쉬면 저쪽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 손님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녜요. 그렇게 안 하면 저기 돈암동(敦岩洞)이고 안암동(安岩洞)이고 손님을 뺏기잖아. 이렇게 합의해서 하다가 구청에서 또 그날 ‘안 된다, 처음부터 쉬어라’ 그러면 쉬고 그때는 그랬지. 위생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요.

(만약 쉬어야 할 경우에도) 그래도 손님이 예약하면 다 해줬어요. 말하자면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다는 뜻이겠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놀러 다니는 곳도 많지만 그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영화관 가거나, 창경원 동물 구경이나 하는 거지요.

● 지금처럼 여름에 피서를 가기도 하셨나요?

글쎄. 피서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네요. 나는 피서 같은 거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나도 굉장히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도 미용실 생활이 손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손님이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유 있게 손님에게 ‘안 해준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절에는 다 얹매여서 살았어요. 나는 종업원 생활이나 얹매여 사는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내 또래에 있는 미용인은 다 얹매여 살았다 하는 그런 게 많아요.

● 동네 친구나 또래 친구와 교류가 잦으셨나요?

60-70년대에는 미장원을 시작하고 미용사 생활을 하면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청소하고, 손님이 오면 받기가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게 드물었어요. 옛날에는 2주에 한 번 놀았어. 그때는 미장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용실의 대단한 그런 게 없었어요. 명동에는 큰 미장원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주택가에 쏠쏠만 미장원이 많았지요.

남의 집 종업원 생활을 하면 종업원 일을 또 착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3년 후에 내가 미장원 오픈해서 거기에 매달려 일한다고

종업원 한 사람 데리고 일하는데 거기에 정열을 다 쏟는 건데 친구 사귀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딴어요. 대개 미용사 분들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류 미용사가 되고 수입이 좀 있고 이러면 옛날에 놀러 가는 데가 딱 한군데 있었어요. 저는 외출을 잘 안 해요.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는 잘 안 나가고 집에서 책보고 뭐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외국 헤어스타일을 보러 가는 거죠. 동양머리와 서양머리는 많이 다르니까 연구해야지요.

●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영화. 내가 취미가 영화 감상이고 음악 감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어도 어떤 때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주로 외국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는 외국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외국 머리가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작업하는 순서도 다 달라요. 그거를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요. 내가 노랑머리를 어떤 색깔로 바꿔서 어떻게 만들면 더 이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요.

영화를 볼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은 일단 보고 집에 오면 생각을 하지요. 아, 저럴 때는 저런 머리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쁜데. 일요일이나

되면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도 날마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기 바빴지 뭐.

나는 <벤허>도 두 번인가 세 번 봤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로미오와 줄리엣> 주로 그런 거 많이 봤죠. 보통 두 번 세 번은 다 봤으니까요. 그때는 한국영화 많이 없었어요. 다 외화(外畵)잖아요. (극장은) 옛날에는 저 계림. 을지로(乙支路) 6가에 가면 계림극장이 있었어요. 을지로 6가 계림극장이요, 그다음에 명동(明洞). 명보극장(明寶劇場)⁸, 스카라극장, 단성사(團成社)⁹ ...

● 음악은 주로 어디서 들으셨어요?

음악은 옛날에 종로에 가면 씨씨봉. 거기에 가면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학원 동기들,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도 말하자면 이게 잘 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명 두 명이지 막 이렇게 지금같이 몰려다니고 그런 거는 없고. 친한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그때는 그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면 음악 듣는 시간이 한 두 시간은 걸리잖아요. 듣다 나오고 그랬지요. 우리는 신청곡도 잘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차 마

8 1957년 8월 26일 개관한 영화관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5에 있었던 대중예술 극장이었다. 당시에는 외국영화 전용관과 한국영화 전용관이 나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8개 극장 중 명보극장은 국도극장, 국제극장과 더불어 한국영화 전용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8년 폐관하였다. 현재는 (재)신영균 예술문화재단에서 ‘명보아트홀’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실버극장’을 운영하고 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상설 영화관이다. 1907년에 주승희가 발의하고 안창목과 이장선이 합자하여 2층 목조 건물로 세웠다. 단성사는 조선극장·우미관(優美館)과 더불어 북촌의 한국인을 위한 공연장으로 일인 영화관인 황금좌(黃金座)·희락관(喜樂館)·대정관(大正館) 등과 맞서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음악·무용발표회 등에도 무대를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의 매체로 큰 몫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대륙극장(大陸劇場)으로 개칭하였다가 광복 후 다시 단성사로 복귀하여 악극(樂劇)을 공연하였다.(출처: 두산백과)

시키고 가만히 앉아 듣는, 음악 듣는 거지. 틀어주는 음악을 그냥 듣는 거고. 그때 그 시절에 지금같이 구체적으로 신청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결혼과 육아

●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27살이에요. 중매했어요, 나는. 미장원 일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올케 친구가 중매를 했어요. 만나서 보니까 서로 마음에 들어 결혼했죠. 그 해에, 지금 미국 가서 사는 딸이 생겼어요. 그래도 큰 아이 났을 때도 손님이 많아서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여덟 달 반 만에 나왔어요. 왜냐면은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깐. 아이가 빨리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잘 자랐어요. 지금 미국에서 메이크업 잘하고 있죠. 메이크업하고 프리랜서로 패션모델 메이크업하고 바빠요. NBC 미국 국영방송에서 K-뷰티 영상 제작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 자녀 분이 태어난 직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나요?

그럼요. 안 쉬었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단골손님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딸 낳았을 때는 내가 고생을 했었어요. 제

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아물 때까지는 한 보름, 20일 동안에는 꼼짝 못하지요.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으면 또 나와서 일하고 그랬죠.

내가 건강한 체질을 타고 났나 봐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건강해서 그런지 큰 사고는 없었고, 다리 수술을 어릴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굳어지고 나서는 장애자로 절기만 했지, 크게 아픈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모든 몸의 균형이 달라지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죠. 그런데도 그렇게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또 하게 된 거는 허리에 무리가 와서 척추에 쇠를 박는 수술을 했지.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지 나를 건강 체질로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큰 병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 대수술을 했는데 다섯 번 정도 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면 됐지. 운명에 감사하며 잘 관리하고,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굳은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봐요.

● **미용실 일이 바빠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을 것 같아요. 아이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집 아이들은 미장원 가까이 (집이) 있어서 그렇게 멀리는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줬어요. 그래

서 항상 보고 싶으면 미장원에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는 주로 외할머니가 키워 주고. 그다음에는 할머니가 유치원이고 학교도 다 챙겨 주셔서 나는 주로 미장원에서의 생활에 전념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았어요. 나는 일은 또 무섭게 하는 사람이니까. 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한 번 하고 가면은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연장이 되니까 끝없이 연장선에서 하는 거죠. 그때는 보문동에서 바니미용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현재까지도 바니미용실 하면 다리 아픈 미용사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잘 관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예약제로 하면서, 손자 잘 키우고 남편(아들) 뒷바라지 하며 미용실을 잘 운영하니 편안해요.

● 자녀 분들 학교를 보문동에서 다니셨나요?

우리 첫째 딸은 보문동에 있는 대광국민학교(현 대광초등학교) 사립학교를 다녔고, 한성여중, 서울예대를 졸업했어요. 아들은 동신국민학교(현 동신초등학교). 어린이회장도 하고 용문중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학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건강하게 어린이 회장까지 하며 잘 자라주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리틀미스코리아도 나가고 무용도 잘해서 예능계통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딸은 미국에서 비달사순(헤어스타일링 브랜드로 헤어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부, 미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메이크

업을 본인이 좋아하니까. 지금은 패션 모델들 메이크업을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에서 특히 신부 화장은요, 얼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딸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하는 걸 다 봤나 봐.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제법 잘 해”라고 처음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은 뭐, 머리도 척척 잘 하고 메이크업도 다 해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메이크업 따로 헤어 따로 하는데 딸은 다 하고 있어서 고맙다고 해요.

체육전공인 아들은 누나 따라서 미국에서 골프 공부를 했는데 그만두고 미용공부 제안을 했어요. 미용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요. 서경대에서 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한성대 미용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어요. 딸, 아들 다 미용을 하고 있으니 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 며느님도 미용사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바니) 미용실에서 같이 하죠. 며느리가 (미용실을 이어) 여기서 한 지가 14년 됐어요. 바니는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며느리도 서경대학교 강사로 나가고, 한성대학교도 나가고 지금도 시간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들 키우면서, 정확하게 잘 키워주고 미장원을 크게는 아니라도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며, 잘해주고 있어요.

14

대한미용사회 활동과 미용인 양성의 노력

보문동 미용실의 교류

● 보문동 미용실끼리 교류가 있었나요?

성북구 보문동이 옛날에는 동대문구였어요. 동대문구에서 편입이 돼서 성북구 보문동도 성북구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때 미장원이 보문동 1동, 2동 전체에서 열아홉 개뿐이 없었어요. 동대문구에 있을 때에 지부장님이 나를 구역장을 시켰어요. 그때서부터 이 조직(대한미용사회)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아홉 개를 내가 이집 저집 다니면서 통성명을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단합이 잘 되려면 반상회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이자 해서 돈을 모으니까 200원인가 됐어요. 모아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몇 달 만에.

회비를 조금씩 모아서 먹고 놀러 가고 그러려고 한 거죠. 그때는 내가 구역회의를 주선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모였어요. 보문동 식구들이 나를 잘 따라줬어요. 그니까 단합이 잘 된 거지요.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낸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미장원 원장들을 잘 통솔하며 친목을 도모하곤 했어요.

● 구역회의 하실 때 어디서 뭘 하시면서 노셨나요?

중국집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고, 미장원 잘 되나 의견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만난 거죠. 지금같이 연구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동네 언니 동생 하면서 친목계같이 미장원 원장들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모이면 싸우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다투지 말아라, 그걸 주로 강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내가 (미용 가격을) 제일 많이 받을게, 니네 조금 받아도 응? 이렇게 잘 해서 사이 좋게 지내자” 이랬죠. 나는 내가 미용하면서 다른 곳보다 싸게 받고 이렇게 안 해요. 다른 미용실에서 100원을 받으면 나는 150원, 130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미용실에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금 많이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 손님이 그대로 오니까요. 그래서 사이 좋게 잘 지냈고요. 지금은 이 보문동하고 1동, 2동이 미장원이 지금 서른 개 정도 돼요.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모임도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동네 구역장에서 성북구 지부장까지

● 지회장을 지내셨다고 했는데 구역장을 하다가 하게 되신 건가요?

그때 동대문구에서 여기로(성북구) 바뀌고 나서 구역장을 그대로 내가 했어요. 이쪽(성북구) 지부장님에게 동대문지부장께서 한정숙이가 구역장이다 하고 얘기를 해줘서, 성북구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역장을 하면서 상임이사, 이사로 준 거예요.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1984년도 정기총회 모습이 담긴 사진

그때, 성북구 조직의 회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됐어요. 미아리를 해서 저쪽에 장위동, 석관동 2구역이고 여기가 1구역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거할 때 갑구 을구가 있던데. 성북동, 돈암동, 여기가 갑구고. 을구는 장위동, 석관동, 하월곡동 그쪽이 전부 다 을구 쪽이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 구역에 내가 책임자로 있었죠. 그래갖고 구역장을 하다가 보문동 식구들이 나를 잘 따라줬어요. 그니까 단합이 잘 된 거지.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낸 거 같아요. 지금에 생각하니깐.

처음에 초대 회장님 계실 때 성북구에 400개로.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지회로는 (회원인) 두 번째로 많았을 거예요. 성북구가 또 도봉구로, 강북구로 분구되었어. 강북구가 노원구로 분구됐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분가시켜주고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역이 나뉘어지면서) 식구가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은) 또 계속 늘은 거야. 그러니까 성북구가 엄청나게 큰 거야. 서울 시내에 17개 지회에서 우리가 두 번째니까.

70-80년대 당시에 종로도 300개. 당시에 개발 지역이 많이 자꾸 범람해지니까. 성북구는 원래 강북하고 노원하고 집단체잖아요. 다 같은 라인이니깐. 그래서 많은 거 같은데. 이제 쪼개주고 나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안 줄고 계속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는 신규가 생기면은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 지금은 등록된 사람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신고제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니까는 회비를 안 내는 거야. 지금은 내가 관둘 때 그때가 55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700개가 넘을 거예요.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86년도 정기총회 모습이 담긴 사진

(동네 반장같이 구역장으로 시작해 상임이사를 거친) 이후에 내가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을 6년을 했는데. 성북구의 초대회장. 그때는 지부장이라 그랬어요. 그 초대회장님이 계실 때는 내가 상임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부회장을 하시던 분이 지회장을 6년을 했어요. 6년을 하고 나가면서 내가 부회장이니깐 내가 다음을 회장직을 이어받은 거지. 받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6년 하면서. 그때는 단임제였어요. 3년을 했는데 중앙회 회장님이 3년을 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들어갔다가 배울라 하면 나가야 되니까. 중앙회에서 회장님이 한 번 더 연임을 하자 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통과를 봐서 6년을 한 거예요. 성북구지회를 6년을 하니까 그때는 회원들이 600명 됐었어요. 성북구지회 때는 700업소, 800업소. 또, 그때는 서울시에 구가 17개였었어요. 그다음에 19개, 20개, 늘

어나서 지금은 25개.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700업소라도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무가입자가 있어서. 허가가 없는 사람, 또 신고 안 한 사람. 그래서 대략 800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등록된 700개 업소만 관리를 했어요. 그때는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나는 미장원 하면서 (업무를 봤지). 이거는 명예직이니까 날마다 상근 출근은 아니예요. 결재하러 간다든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보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거니까. 협회의 관리자로서 미용인의 대표자로서 미용사의 권익과 보호 차원으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였어요. 친목단체로서의 모임이죠.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 1987년도 시무식 모습에 담긴 사진

해외 미용대회 출전

● 80-90년대 새로운 미용기술은 해외에서 배우기도 하셨나요?

그때는 해외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연구하는 이태리(이탈리아), 불란서(프랑스), 독일로 유학과 연수를 갈 때니까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불란서가 최고였잖아요. 불란서 헤어디자이너들, 독일, 이태리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강세였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때에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당시에 80년부터 90년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용대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미용계가 많이 열악했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헤어스타일을 불란서나 일본, 외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작품을 구상하는 연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란서 같은 데는 새로운 공부를 해서 창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실이 있었어요.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작품이든지 두 개든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전부 공급을 시키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었어요. OMC나 CACF, IBS대회나 뭐 LCF나 CAT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공급을 시켜주면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국내 미용인에게 공급했었지요. 90년 들어서는 활발하게 미용전문직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었지요.

● 미용대회에도 출전하셨나요?

그럼요. 우리도 다 불란서를 갔다 왔고, 이태리도 영국도 갔다 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이 주로 해외에서 대회만 하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강사되기 전에 한국에서 미용대회를 했어요. 국내 미용대회를 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 4등이 되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해외 미용대회에 선수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그때 이태리에서 할 때, 불란서서 할 때 제가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국가대표가 말하자면 일반 대표가 있고 학생 파트가 있고 여섯 명이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회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20명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국가대표로 나가신 분들 지금은 명장님들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인이 되었죠.

한국 선수 선발을 하는 장소가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룸이었어요. 미용사들이 국내대회에 출전해서 선발이 되면 국가대표로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외국을 나가서 대회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기술이 잘한다 하여도 외국 사람을 못 따라갔어요. 머릿결이 달라요. 동양인은 까만머리에 직모로 두껍고, 서양인은 노랑머리에 결도 좋고. 동양인 까만머리를 탈색시켜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외국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새면서 작품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마샬(현 마샬뷰티살롱)의 하종순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OMC대회를 개최하신 분, 지금은 고문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이 회

장 하실 때. 그때는 많이 인솔해서 많이들 가셨어요. 해외에 가서 떨어져도 거기에 출전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큰 영광이고 또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선수로 출전하고, 선수로 출전해서 또 외국 나가서 거기 가서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가지곤 못 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머리는 동양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동양인은 머리가 직모라 뺏뺏해갖고 꼬부라 지지를 앓고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부드러우니까 아주 유연하게 잘 되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모델을 사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완전히 독일, 이태리, 불란서 이런 사람들이 다 석권을 했어요. 우리는 동양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그때는 제일 썩지에 있을 정도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선수들 잘해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가면 1등, 2등 다 하고 그래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한국 미용인들은 끈기가 있잖아요.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대단한 노력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긍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1986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린 뉴욕 I.B.S
파견 한국선수선발대회에 참여한 모습

85년 11월 8일

파견한국선수선발대회 ○장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



1986년 월드챔피언십 파견선수선발대회에서 헤어모델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의 왼쪽 모델이 구술자의 작품이다.



86년 월드챔피언십 파견선수선발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되어 시상하는 사진.
구술자는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외대회에 출전하였다

●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모델은 외국인으로 하나요? 또 외국에 얼마나 체류하나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면) 모델은 외국 사람을 쓰죠. 익숙하지 않으니 까 모델을 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해요. 우리는 한 번 나가면 20일 있다가 와요. 한 번 이태리 갔을 때 그때 20일 있다가 22일 만에 들어왔어요. 다 같이 일행이 한 번 나가면 여러 나라 가서 공부하고 또 가는 김에 스위스도 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공부도 하고 세계적인 헤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오죠.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OMC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있고 IBS 때는 1년에 한 번씩 라스베이가스(Las Vegas)나 모두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했어요. 지금도 OMC는 있어요. 세계적인 OMC는. 헤어월드챔피언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OMC대회를 열면서 외국 미용인들이 수백 명 오고 국내 행사로서는 최고의 대회를 치룬 후부터 우리나라 미용계가 많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 때마다 많이 가죠. 나는 갈 때마다 다는 못 가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다리가 아파도, 그때는 잘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아팠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아파서 그렇지만. 그때 경험한 기술을 지회장에 있을 때 활용을 했죠.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미용기술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OMC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거둔 모습

주안코스메틱
www.geniepark.co.kr

한국, 헤어월드 3위

60국 참가 파리서 열려... 주니어 2위

손기술 분야에서 최고라는 한국 미용이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했다. 미용올림픽으로 불리는 'OMC 헤어월드 2010'에서 한국이 시니어 부문에서 국가 종합 3위, 주니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지난 11월 15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대회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회에 따르면 한정숙 미용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11월 6~8일 프랑스 파리 포

준우 선수가 헤어바이나이트 종목에서 5위에 입상했다.

구술자(당시 미용기술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출전한 헤어월드대회에서
3위를 한 신문기사. 구술자가 기사를 스크랩하여 소장 중이다.

미용 강사 양성과 기술·기구의 보급

● 외국에서 배워서 국내에 기술을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나보다 훌륭한 강사들이 많잖아요. 섭외를 해서 모셔다가 강당을 빌려서 (성북구) 회원들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005년도, 2002년도, 또 1999년도 각 연도에 유행하는 스타일을 회원들한테 공급을 시켜주어야 회원들은 미용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본인 사업을 잘하게끔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700명 중에서 한, 두 명 쯤 외국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재료를 갖고 회원들을 모집을 시켜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하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 강의를 있을 때는 회원들한테 공문을 발송시켜서 나오라고 해서 교육했어요. 그때는 남이(강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면서 기술을 연마했으니까요.

미용사회 성북구지회 정기총회와 함께 위생교육시간에 회원들에게 머리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미용 공부를) 끝마치고 나면 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속 연구하며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중앙회 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기 동안에 강사를 다섯 명을 만들었어요. 나 한정숙까지 포함해서, 3기 강사 두 사람 만들고 그다음에 나 4기 하고 그다음에 6기 강사가 있고, 7기 강사까지 해 놓고 지회장에서 퇴임했어요. 이번에도(올해) 내가 강사 한 명을 가르치고 만들어서, 이번 18기에 강사가 한 명이 성북구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18기 된 건 월곡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 우연찮게 소개로 찾아와서 나에게 공부하겠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가지고 상을 탔는데 강사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됐어요. 지금은 내가 회장을 안 해도 강사로서 가르쳐주는게 재미있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모르게 바빠요. 맡은 직책은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보람도 있고요.

이후에 강사가 되고 나면 미용협회나 위생교육 시 기술 보급에 초점을 하지요. 어디든지 지회, 지부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강사가 되면 그 사람은 성북구에서 강사가 있다는 것도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앙회강사, 기술적인 면에서 강사가 되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미용이 내 인생의 천직인가 봐요. 지금도 성북구지회장을 안 해도 고문으로 있잖아요. 중앙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강사가 많아요, 대략 500명이 있어요. 내가 4기 강사거든요. 1기 분들은 많이 은퇴하셨지. 내 윗대니까. 1기, 2기, 3기, 내가 4기. 지금은 18기까지 내려왔으니까는 어마어마하죠. 강사출신들이 대부분

대한미용사회를 석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제4기 강사위촉장수여 92.2.7

92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제4기 강사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촉장을 수여 받는 모습



강사로 위촉된 이후 헤어모델과 함께 강사스페셜 출연 후 찍은 사진

● 현재도 미용기술을 알려주시나요?

지금도 미용실에 가면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우리 미용실로 올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드라이를 잘 해요. 업스타일도 잘 하지만은 머리 올리는 걸(올림머리) 잘 해요. 업스타일은 주로 창작이거든. 창작이에요. 그것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 업스타일은 내가 자신있게 잘 가르쳐줘요. 그것은 외국을 가서 외국 사람들이 드라이 공부를 많이 시킬 때에 내가 드라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지금도 미장원에 가면은 “우리 회장님”, 이 ‘회장’이 입에 붙어갖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드라이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근데 드라이에는 요령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기법이 다 달라요. 아무렇게나 쪽쪽 뺏는 사람이 있고. 그 기교가 있어. 기교를 잘 부리면은 머리가 윤기도 나고 오래가기도 하고 아주 멋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면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못 따라 배우는 사람은 안되고, 배워야 되겠지만. 제 기술을 아껴놓으면 뭐하겠어요. 다 가르쳐줘야죠. 나도 갈 길은 다 정해져있는 건데.

지금은 일선에서 많이 안 뛰는 대신에 조직 생활을 또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협회라는 것이 회원을 관리하는 거고 회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게 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용사는 항상 미용인끼리 경쟁의식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좋은 테크닉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성북구 자체 미용대회를 개최하다

● 미용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북구 지회에서는 내가 6년 동안에는 별 탈 없이 잘 했어요. 그런데 회장직을 너무 오래 할 수는 없는 게 정관대로 해야 되니까. 나라에 법이 있듯이. 미용사회도 정관이 법이 있어요. 6년 하고 단임제로 나와서 중앙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강사로서 움직였어요. 그 다음 후배 지회장님들이 후임으로서 직무를 잘했지요. 그 후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3년씩 4번 더하고 2011년에 다시 후배에게 물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회장) 재임 시에 내가 회원 관리하기 위해 들어서 미용 대회를 했어요.

(당시에 미용대회를 할 때는) 성북구청장 서찬교 구청장님이 (2002. 7. ~ 2010. 6. 재임) 협찬을 해줬어요. 구청에서 도와줘야지 혼자서는 못해요. 큰 행사이니까. 그러면 700명한테 공문을 보내고, 또 미용대회를 하면 문제가 뭐고 하면은 협찬도 있어야 되지만 행사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미용대회를 하고나면) 미용인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공부가 돼요. 왜 공부가 되느냐 하면은 그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마다 산동네니 구석에 있는 미용실 사람들에게 다 공문을 발송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회 출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하면은, 그때 선수가 120명 되었어요.

120명이 파마 부문, 커트 부문, 이브닝스타일 부문, 신부 화장, 업스타일. 신부 화장은 드레스 입고 메이크업. 신부 화장이라고 해서 메이크업을 해요 드레스를 곁게 입혀서 하고. 그 작업을 분야별로 강사를 외부에서 모시고 와야 돼요. 이 안에는 전문강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 얼마나 공부가 돼요? 돈 안 들고. 그러니까 주최하는 사람은 힘들지 회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연을 하면은 120명이 다 무대 올라가서, 구민회관에서 해서 사진도 있어요. 구민회관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파트에 파마 부문이 올라왔다. 한 30명이 올라와요. 그러면 최고로 잘 하려고 그러고. 심사위원들도 외부에서 부르면서도 여기에서 조금 잘 하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생각, 아이디어예요. 회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 부문 다 각자 해서 1등, 2등, 3등. 다 뽑아내갖고 상을 주고. (상 받은 것을) 미장원에 갖다 붙여놓면 ‘아, 이 사람은 성북구 대회에서 금상 탔다’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미장원에 플러스 되고 또 그 원장도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때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만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최초로, 이 서울 시내에서 구 대회를 첫 번째로 시작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했다니까? 내가 하니까 다른 지회도 따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도 가보고 저 대회도 가보고 했어요. 잘 배워 와가지고 그 다음은 그룹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내가 퇴임할 때 많이들 도와줬지. 그때는 강사 입장에서 도와줬었어요.



성북구청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당시 신문기사.
구술자가 기사를 스크랩
하여 소장 중이다



미용대회 개최 당시 대회를
협찬해준 성북구 서찬교 구
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

후배 양성의 꿈과 미용협회에 전하는 당부

● 선배 미용인으로서 후배 미용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미용인들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돈만 알고 사는 걸로 인식되고 싶지 않아요. 못 배워도 알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이 세상 험난한 삶을 배운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직업보다 나으리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노력하면 훌륭한 직업인이 되는데 왜 미용을 마다하겠어요. 좋은 직업이에요.

옛날에는(60-70년대) 미용사 출신들이, 주로 과거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출신 아니면 공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가 환경이 열악할 때 미용의 시작은 힘들었어요.

옛날에 봉사하러 교도소에 갔었어요. (미용기술 관련) 시험감독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인물 좋고 다 좋은 사람들이 유치장에 있더군요. 도둑질 해갖고 오는 사람 참 많았어요. 외모는 정말 잘 생겼는데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해서 왔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미용이 좋으면 미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나쁜 것을 다 잊어버리게끔 되잖아요. 미용을 하면서 생활이 개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이 가르쳐 줌으로 해서 다시 나쁜 짓도 안 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그런 것을 나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미용을 하는 사람의 정신이 남을 아름답게, 예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봉사도 하고 미용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가르침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게 변함이 없어요.

미용협회 군부대장병 이발 봉사활동

육군 57사단 예하 220연대 3대대 방문



실의 회복을 대표가 봉사활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13일 장위2동 방위협의회 회원들과 부대를 방문 일일병영체합을 하면서 평소 직업인 병사들의 이발실태를

성북구미용사협회(회장 한정숙)가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이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정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은 지난 16일 성북구 지역 작전담당부대인 육군 57사단 예하 220연대 3대대를 방문, 부대장병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미용사협회의 이번 봉사활동은 회

눈여겨 본 것.

대대장 및 병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발기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용기술 및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병사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대표는 협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고 한정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업체 대표들이 흔쾌히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병 120여명을 대상으로 이발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미용봉사를 실시한 대표들은 친 자식의 머리를 깎아주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장병들의 감동을 자아냈을뿐 아니라 힘든 병영생활을 독려하는 따뜻한 격려의 말로 훈훈함을 느끼게 했다는 후일담.

또 군의 열악한 이발환경 지원과 기술을 전수하는 등 민(民)과 군(軍)이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발지원을 받은 병사들은 "최고의 실력과 기술을 겸비한 어머니같은 나의 의 원장님들이 직접 머리를 깎아주어 더욱 감사했다"며 "너무 군생활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협회는 이발봉사를 향후 지속적으로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회의를 거쳐 지역동대의 상근예비역들도 미용봉사의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구술자는 성북구지회장 당시 성북구 미용사들과 함께 군부대 장병들에게 이발 봉사활동을 하였다. 구술자가 기사를 스캔하여 소장 중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미용사들 욕하면 화를 내요.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기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미용학과에 학생이 수천 명이예요. 미용학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대학 출신들이 많잖아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대학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학식을 쌓아가는 미용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예요.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미용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데요.

미용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미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기계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인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용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그래서 했지만, 지금은 다 잘 살고.

또 저는 미용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적으로 감각을 살리면서. 지금은 엄마들이 ‘너 미용해라’ 하지, ‘너 미용하지 마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미용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헤어디자이너로, 예술인으로 변신하는 시대가 왔어요.

● 미용협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옛날 고생하고 달라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 미용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직 젊은 미용인들은 아직 조직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돈도 좀 벌여놓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관리자가 되어야지, 한창 돈 벌 시기에 명예 잡겠다고 회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중앙회에서 일해 보면 전국 대의원이 750명이예요. 100명당

대표가 하나니까. 750명의 대의원들을 보면 각 대의원들이 전국각 지회에서 선출되어 모여 올라와서 총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많은 변화가 오는데도 조직은 항상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미용계에 남아있는 나이 드신 선배분들이 많아요. 이 미용기술은 한번 손에 익히면 안 변해요.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기력이 다 할 때까지 안 버려져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하고 의견이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습을 이야기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어요. 그래도 경험자의 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조직의 관리자는 미용인의 대표자로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좋겠어요. 나는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더라도, 이 미용계의 새로운 혁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기술은 기술이지만 상업적인 거나 운영체계가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혁신적으로 잘 해가지고 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성북구 지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큰 과제예요.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법을 공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사 정관을 모르면 안 돼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미용실 운영자하고 조직 관리자하고는 달라요. 조직 관리자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지. 나는 다른 조직은 몰라요. 그러나 미용 조직에 대해서는 법규. 또 우리가 지킬 거는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정상적으로 가르쳐줘야지 얼렁뚱땅하게 그렇게 해

라, 이게 아니라. 몇 조에 몇 항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잘 따르고, 잘 배우고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워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몇 조항은 딱 기억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실 미용실에서 머리만 하지 그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써요. 그렇지만 협회(조직)를 관리하려면 법규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그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리더를 만드는 거죠. 미용협회에 대한 법규는 아는 사람이 하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만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 리더가 있어야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회원이 있어야지 협회가 있고 회원들에게 또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선배로서 내 임무라고 생각해요. 회장(명예직)을 하는 미용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는 회원을 위해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회장님을 도와주며 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무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실무자 역할을 하면 그런 협회는 발전가능성이 약할 것 같아요.



2009년 성북구 미용사회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 당시의 사진

●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나는 그래요. 크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내가 건강이 닿으면, 지금 내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미용은 중노동에 가까워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건강관리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지금 성북구협회가 반듯하게 잘 가는 걸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미용인으로서 마지막까지 미용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한정숙이 되고 싶어요. 미용사로서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는 미용인.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는 사람. 미용인들을 사랑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미용은 중노동에 가까워요, 건강관리하면서 예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재미있게 지낸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구술자의 글>

미용인 후배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

후배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용인은 미용인끼리 신뢰하고 의논하고 더불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야만이 원만하게 풀려가고 서로 다툼보다 조금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본듯해야만 상대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아는 분에게(선배) 물어보고 자기 생각과 부합시켜서 헤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사 인생 살다 보니 미용사하고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생 히로애락이 미용 생활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다보니 미용, 미용, 미용하면서 미용사 생활 속에 묻히며 살았군요. 미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손님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만족하며 웃고 가면서 돈도 주지요.

대한미용사협회 이사로서 향후 활동

2020년 다시 중앙회 이사로 발탁되어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고 중앙회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주어진 책임감으로 미용인을 위하고 미용사회에 일원이 되어 미용사가 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미용인으로서 고생하신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지금 이 시

대를 사는 미용사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께 중앙회장님의 뜻에 부응하는 이사가 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 이만큼이라도 시대적 변화에 미용이라는 글자를 되새기며 많이도 변화가 왔군요. 지금의 시대에 맞추어 젊은 세대들에게 무궁무진한 미용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되어 직업관을 확고히 하는 미용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어스타일을 창조하며 남의 것을 모방하는 시대에서 동양적이며 서양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연수를 오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북구 관내에 있는 미용인부터 체계적으로 미용을 섭렵하고 영업도 잘 할 수 있게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 당선자와 함께 찍은 사진.

구술자가 액자로 만들어 소장 중이다

에필로그Epilogue

이 책의 주인공 한정숙 구술자는 오랫동안 보문동에서 살아온 보문동의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미용에 종사한 미용전문가입니다. 이에 한정숙 구술자를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술도서를 발간하는 작업은 한정숙 구술자의 인생을 통해, 보문동의 역사와 미용계의 역사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된 작업이라 한정숙 구술자의 인생을 모두 담아내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한 권의 구술도서가 탄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도현

지금은 없어졌지만, 처음 성북동 골목에 공방을 열었을 때 내 옆집은 성아 미용실이었다. 한평생 머리만 만졌다던 할머니와 가끔 믹스커피를 한잔씩 나누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북동 골목길의 변천사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자리 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단단해졌다.

한정숙 선생님은 마치 그 성북동 첫 이웃 같아서 정겨웠다. 미용이라는 직업의 변천이 신기했고 그와 함께 변화하는 동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다. 선생님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내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도 바뀌어갈 다음 세대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곤 하셨다. 그렇게 쌓인 선생님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직업을

한평생 끌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삶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내 마음에도 새기고 싶어졌다.

웬지 앞으론 누군가의 일생이 어땠는지가 자꾸만 궁금해질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이야기를 이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 김민경

한정숙 선생님과 처음에는 조금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만날수록 친근감도 쌓이고 소소한 기억들까지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의 지난 삶 속으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정숙 선생님을 구술자로 추천하고 소개해주신 주민기록단 1기 신정란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 조성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보문동의 주민 분을 인터뷰 할 수 있어서 즐겁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구술자 분을 통해 접한 보문동은 익숙하면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곳,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보문동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문동과 성북구에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술이 아니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귀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글이 되고 책이 되어 하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바니 미용실을 방문했던 다양하고 오래된 손님들, 보문동 미용실들의 오손도손한 반상회와 연대, 미용실 안에서 잡지를 보고 라디오를 듣던 그 시절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어느 날이 아닌, 책으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매우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또 구술자분의 구술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직업 정신과 자부심, 책임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로지 미용 한 길”이었다는 말씀에서, 구술자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자부심이 느껴져 저 자신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귀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정숙 구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우영

이미지 출처

- 14쪽 : 성종윤 촬영
- 21쪽 : 한정숙 제공
- 22쪽 : 한정숙 제공
- 23쪽 : 한정숙 제공
- 27쪽 : 한정숙 제공
- 29쪽 : 한정숙 그림
- 31쪽 : 한정숙 그림
- 34쪽 : 서울사진아카이브 (photoarchives.seoul.go.kr)
- 36쪽 : 한정숙 제공
- 39쪽 : 성북문화원
- 40쪽 : 한정숙 제공
- 41쪽 : 한정숙 제공
- 42쪽 : 한정숙 제공
- 44쪽 : 한정숙 제공 (上), 성북문화원 (下)
- 46쪽 : 조성윤 그림
- 53쪽 : 한정숙 그림
- 58쪽 : 조성윤 그림
- 59쪽 : 성종윤 촬영
- 83쪽 : 한정숙 제공
- 85쪽 : 한정숙 제공

86쪽 : 한정숙 제공
89쪽 : 한정숙 제공
90쪽 : 한정숙 제공
92쪽 : 한정숙 제공
93쪽 : 한정숙 제공
95쪽 : 한정숙 제공
99쪽 : 한정숙 제공
101쪽 : 한정숙 제공
105쪽 : 한정숙 제공
107쪽 : 성종윤 촬영
109쪽 : 한정숙 제공

보문동은 ...

보문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한옥과 양옥 그리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주상 복합 건물들... 이처럼 보문동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과거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정숙 님은 보문동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보문동의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미용과 함께한 미용사입니다. 이 책에는 한정숙 미용사의 구술을 통해 보문동의 변화상과 미용계의 발전상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펼치신 독자들은 변해가고 있는 보문동과 미용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정숙 미용사의 목소리를 통해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9-11-954544-4-0

비매품